

포스코, 탄소배출권 사업 UN 등록

우루과이 현지 조림 CDM 사업 등록 ... 국내 최초이자 세계 18번째

포스코가 UN에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등록하면서 친환경기업의 면모를 과시했다.

포스코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남미 우루과이 현지 조림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등록했다고 9일 발표했다.

조림방식의 탄소배출권 등록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는 18번째이다. 글로벌 철강기업 중에서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포스코는 2008년 12월 이사회에서 우루과이에 5500만달러를 투자해 2만ha의 조림지를 매입하고 탄소배출권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우루과이에서 1000ha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88만그루의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다. 이후 우루과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0>